

편집후기

River & Culture

2005년 “하천과 문화” 창간호를 준비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란 성상이 지나 통권 32호에 이르렀습니다. 오랜 산고(産苦) 속에 태어난 골격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서, 창간호를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4대 편집위원회는 앞선 편집위원회의 발걸음을 뒤쫓아 독자들께 보다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.

김현준 | 편집위원장

